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사실상 이자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상당수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는 0%대를 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22개 예·적금 상품 기본 금리를 0.25~0.45%포인트 내렸다.

KB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 단위기간 금리연동형(1~6개월)' 상품 금리를 기존 연 0.7~1.1%에서 연 0.6~1.0%로, 'KB국민UP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1.35~1.5%에서 연 1.1~1.3%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5~0.95%였던 'WON예금' 금리를 연 0.5~0.87%로, 1년 만기 위비정기예금 금리를 연 1.4%에서 연 1.1%로 내렸다. 신한은행은 21일부터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과 '신한 주거래 S20통장'의 우대 이율을 연 최고 1.50%에서 1.25%로 조정한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11년 불마켓(강세장)이 끝나며 사실상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와 유가 붕괴로 뉴욕 증시가 지난 2월 사상 최고에서 거의 3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피는 3월 18일 10년 만에 16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여유돈이 있다면 잠깐 '파킹(Parking)'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잠깐 주차 하듯 은행에 짧게 돈을 맡겨도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이다.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빼내 쓸 수 있어 자금관리에도 유용하다. 금리 적용조건이 상품마다 다양해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